

화어계 문학: 주변적 상상과 횡단적 구축*

왕더웨이(王德威) 저

김혜준 역**

화어계 문학(華語語系文學, Sinophone Literature)은 해외 중국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이다.¹⁾ 여태까지 우리는 현대 중국문학 내지 현대 중문문학을 논할 때 대개 Modern Chinese Literature라는 말로 일컬어왔다. 이런 표현은 명분에 합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당대의 맥락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파생시키기도 했다. 즉, 국가 상상의 심리, 정전 글쓰기의 승배, 문학 및 역사의 거대 서사(master narrative)의

* 영문제목: David Der-Wei Wang(하버드대학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 "Sinophone Literature: Imaginary Border and Cross-border Construct"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dodami@pnu.edu

1) 2006년 4월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는 타이완 출신인 왕더웨이(王德威, 1954~)의 주도 하에 '여행 중의 중문학과 세계 상상(Traveling Chinese Literatures and World Imaginations)'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 왕더웨이는 모두 발언과 발표문을 통해서 '화어계 문학'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이 글은 바로 그의 발표문인 「華語語系文學: 邊界想像與越界建構」를 옮긴 것이다. 후일 그의 발표문은 문장 구성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中山大學學報 社科版』, 2006—5, 廣州: 中山大學, 1—4쪽;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2007—1,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70—173쪽; 『聯合報 聯合副刊』, 2006.07.08—09, 台北: 聯合報社; 『明報月刊』, 2006—7, 香港: 明報月刊社 등 여러 곳에 게재되었다. 이 글은 『中山大學學報 社科版』 것을 기준으로 번역하였으며, 상기 워크숍에 관한 소식은 <http://www.cck-iuc.org/pages/sinophone.harvard/index.htm> 등에서 일부 확인해볼 수 있다. '화인화문문학'의 개념과 1980년대 중반 이래 이에 관련된 중국 국내의 연구 상황 및 새로운 시각의 제안 등에 관해서는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논문총』, 제50집(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77—11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연적 호응이 그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래 해외 화문 문화와 문학의 왕성한 발전을 감안해볼 때, 이미 중국 또는 중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시기의 문학이 낳은 잡다한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전지구화와 포스트식민이라는 관념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는 국가와 문학 간의 대화 관계에 대해 더욱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Sinophone Literature라는 말은 화문문학(華文文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식자들에게 이런 식의 번역은 별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화문문학을 광의의 중문 글쓰기 작품으로 말해왔다. 이런 용법은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이라는 중심이 확산되어 나간 역외문학을 총칭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는 해외화문문학(海外華文文學), 세계화문문학(世界華文文學), 타이완 홍콩 화문문학(臺港華文文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화문문학(星馬華文文學), 디아스포라 화문문학(離散華文文學) 등이 있다. 이는 중국문학과 대조되면서 중앙과 주변, 정통과 확장의 대비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메타포를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영어적 콘텍스트에서 Sinophone Literature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Anglophone(영어계), Francophone(불어계), Hispanophone(스페인어계), Lusophone(포르투갈어계) 등의 문학이 포함되는데, 각 언어의 종주국 외에 기타 세계 각지에서 종주국 언어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문학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서인도제도의 영어 문학, 서아프리카와 퀘벡의 프랑스어 문학, 브라질의 포르투갈어 문학 등이 참고 가능한 예들이다.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이들 언어계통의 문학이 강렬한 식민 및 포스트식민의 변증법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모두 19세기 이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힘이 특정 해외 지역을 점거한 후에 형성된 언어적 패권 및 그 결과라는 것이다. 외래 세력의 강력한 개입에 따라 현지의 문화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변화를 낳게 되고, 대개 언어 및 언어의 최상급 표현—문학—의 상하 이동이 그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된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설사 식민 세력이 물

러간다고 하더라도, 이들 지역이 받은 중주국 언어의 영향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로부터 나타난 문학은 제국 문화의 잔류물이 된다. 이런 문학은 현지 작가에게 각인된 실어적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창조일 수도 있다. 이방의, 같은 듯하면서도 같지 않은 모어적 글쓰기와 이질화된 포스트식민적 창작의 주체는 이처럼 잡다하고 불분명하며, 원 중주국 문학에 대한 조롱과 전복에 이르게 된다. 중주국의 순수한 언어는 분화되기 마련이며, 제 아무리 정통적인 문학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허깨비 같은 해외의 반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화어계 문학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추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세기 이래 중국은 외부의 침략은 빈번했지만 전통적 의미에서의 식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홍콩·타이완·만주국·상하이 등 식민 또는 반식민 지역에서는 중문이 여전히 일상생활의 대중이었고, 마찬가지로 비록 억눌리고 왜곡되었다고는 하나 문학 창작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하이처럼) 특수한 현상마저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내지 경제적인 요소로 인하여 백여 년 동안 수많은 화인이 해외로 이민을 했는데, 특히 동남아에서 그들은 각종 공동체를 이루면서 의식적인 언어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비록 나라는 전란에 휘말리고 분열과 통일이 무상했지만, 각각의 화족 지역 사람들은 어쨌든 중문 글쓰기를 문화 전승—반드시 정권 전승만은 아닌—의 표상으로 삼았다. 가장 분명한 예가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이다. 19세기 말 남양으로 부임했던 황준센(黃遵憲, 1848~1905)²⁾에서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했던 추수위안(邱菽園, 1874~1941)에 이르기까지, 또 동남아를 떠돌았던 위다푸(郁達夫, 1896~1945)나 싱가포르에 잠시 머물렀던 라오서(老舍, 1899~1966)까지, 모두가 그들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경험을 글로 남겼고 또한 모두 다 중국문학의 역외 에피소드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20세기 중엽 이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국가로 독립함과 더불어 또

2) 인명 뒤의 생졸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옮긴이가 삽입한 것이다.

한 세대의 화문작가들이 이루어낸 계보는 중국문학으로 간주되기가 어려워졌다. 국가라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화인 작가의 창작은 더도 덜도 아닌 외국문학이다. 그러나 대륙 및 기타 화문 지역의 문학 전통과 그들 간의 화답은 매년 역외 화문의 향불이 여전히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탕권이(唐君毅, 1909~1978) 선생의 명언을 인용하자면, 현대성의 잔혹한 시련을 겪으면서 대륙이든 해외든 간에 중화문화는 꽃잎이 스러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곤경에 마주쳤지만, 뜻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 가닥 마음의 향불에 의지하여 스스로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일종의 문명 전승에 대한 조응이야말로 화어계 문학이 여타 언어계 문학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써 중화문화가 넓고 깊으며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라는 식으로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종래로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피를 가진 범위 안에서도 주와 종, 안과 밖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고, 그 불안정한 힘이 종종 일촉즉발의 상태가 된다. 더구나 민족주의라는 깃발 아래에서 한 목소리로 내놓는 비전은 그때마다 역사적 경험 속의 균열과 유동, 헤테로글로시아적 사실을 은폐해버린다. 기존의 해외문학·화교문학은 왕왕 모국 문학의 연장물 내지 부속물로서 간주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세계화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대신하면서, 각 지역의 창작 자주성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과 작품을 열거할 때면 그것이 아우르고 있는 의도가 그보다는 큰 것 같다. ‘오리지널’ 중국문학에 대비해보자면 금세 피차 간의 높고 낮음의 구분이 분명히 나타난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륙 현대대 문학계의 리더 격인 인물 중에서 본업 외에 여력이 남아 해외문학의 성취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마도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이다.

전지구화라고 불리는 시대 속에서 문화와 지식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되는 가운데 공간적 위치 변화, 기억의 재구성, 종족의 이주 및 인터넷 세계의 이동이 이미 우리의 생활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구체

적이건 가상적이건, 또는 초국가적이건 초네트워크적이건 간에 여행이 일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문학 창작과 출판의 변화 역시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왕안이(王安憶, 1954~), 모옌(莫言, 1955~), 위화(余華, 1960~)의 작품 상당수가 홍콩과 타이완에서도 동시에 발행되고, 왕원화(王文華, 1967~)와 리비화(李碧華, 1959~)의 작품 역시 순식간에 대륙에서 유행하며, 진용(金庸, 1924~)이 이론 해내외의³⁾ 독서 취향의 대 결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해협 양안의 네 지역(대륙, 홍콩, 타이완 및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과 또 구미 화인 공동체의 상호 내왕, 미묘한 정치적 상호 작용은 문학 표현 면에서 복잡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다. 현당대 중문문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만일 완고하게 고토 내지 본토를 숭상한다면 독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보일 터이다.

Sinophone Literature 또는 화어계 문학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당대 문학의 과제에 호응하는 것이다. 명칭 면에서 볼 때 이 연구는 국가 문학의 경계 밖에서 또 다른 이론 및 실천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한어(漢語), 화어(華語), 화문(華文), 중문(中文)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언어는 상호 대화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언어가 가리키는 것이 오로지 중원의 표준음적인 언어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시대 및 지역에 따라 바뀌는 구어, 방언, 잡음이 충만한 언어라야 한다. 바흐친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언어는 언제나 원심력과 구심력이 교차하는 곳에 처해 있으며, 또 항상 역사적 상황 속의 개인과 집체, 자아와 타아가 부단히 대화하는 사회적 연표 행위인 것이다. 화어문학은 서로 다른 화인 지역들에게 상호 작용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며, 이 대화는 또한 각각의 화인 지역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강남의 쑤통(蘇童, 1963~)과

3) 알다시피 ‘해내(海內)’라는 단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왕더웨이(王德威)가 이 글에서 ‘국내’, ‘국외’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해내’, ‘해외’라는 말을 사용한 데는 모종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북의 자평와(賈平凹, 1952~), 쓰촨·티베트의 아라이(阿來, 1959~)와 무슬림의 장청즈(張承志, 1948~)가 모두 중문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동서남북의 잡다한 말투 및 부동한 문화·신앙·정치적인 발언 위치야말로 한 시대의 문학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

당대 문학 이론에 익숙한 사람이 볼 때 아마도 이런 식의 정의는 새로운 것도 없는 상투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새로운 논리를 발명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 속에 이론적 자원을 자리매김하고 그 작용 에너지를 검토해보자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화어계 문학을 중국문학과 해외문학을 통합하는 또 하나의 명사로 간주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변증법적 기점으로 본다. 그리고 그 변증법은 문학의 창작과 읽기의 과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 어떤 언어의 교차와 마찬가지로 화어계 문학이 보여주는 것은 변동적인 네트워크로서, 대화도 충만하고 오해도 충만한 것이자 어찌면 상호 화답하면서도 또 전혀 교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래 국가 문학을 중심으로 하던 문학사 연구는 이 때문에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산둥에서 베이징으로 간 모옌은 그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향토소설로 문단에 유명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완으로 간 장구이싱(張貴興, 1956~)이 그려낸 보루네오의 밀림 또한 심금을 뒤흔들어 놓지 않는가? 왕안이와 천단옌(陳丹燕, 1958~)은 그녀들의 상하이를 있는대로 다 써냈지만, 홍콩의 시시(西西, 1938~)와 둥치장(董啟章, 1967~), 타이베이의 주톈신(朱天心, 1958~)과 리양(李昂, 1952~) 역시 그(그녀)들 마음속의 정체로운 ‘나의 도시’를 이루어냈다. 산시(山西)의 리루이(李銳, 1950~)는 향토사와 가족사를 풀어내는 데 능하며, 타이완 국적을 취득한 말레이시아 화인 작가 황진수(黃錦樹, 1967~)와 홍콩에서 거주했다가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는 타이완 작가 스수칭(施叔青, 1945~) 또한 자부할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태평성세의 화려함과 창연함을 논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리텐바오(李天葆,

1969~), 타이완의 주톈윈(朱天文, 1956~)이 장아이링(張愛玲, 1920~ 1995)의 가장 뛰어난 해외 계승자이다. 윤리와 폭력의 심오하고 정미한 전환이라는 글쓰기에서는 일찍이 위화가 능수였지만 홍콩의 황비윈(黃碧雲, 1961~), 말레이시아의 리쯔수(黎紫書, 1971~), 타이완의 뤼이쥘(駱以軍, 1967~) 등이 이미 앞서라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셴용(白先勇, 1937~)과 가오싱젠(高行健, 1940~)의 작품은 이미 디아스포라 문학의 걸작으로 칭송되고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뉴욕에 거주한 부부 작가 리위(李渝, 1944~)와 귀쑹펄(郭松棻, 1938~ 2005)의 성과 역시 더욱 많은 지음들의 감상을 기다리고 있다. 화어계 문학은 따라서 과거 해외화문문학의 복사판이 아니다. 그 판도는 해외에서 출발하지만 마땅히 대륙의 중국문학으로 확산되어 이로부터 대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문학 연구자로서 우리는 구성구석 모두 고려하면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연구를 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필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여타 화문 사회의 문학과 문화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 및 이로써 생겨나는 존중심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동일한 언어계 내의 비교 문학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나는 심지어 화어계 문학이라는 관념이 서로 다른 진영의 통찰과 ‘비통찰’[무시]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지성론자들은 이 분야에 대해 그들이 도모하는 바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어떻게 ‘대’ 중국주의의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만일 여전히 완고하게 정통 중국과 해외 화인/화교 문학을 구분한다면 식민주의 종주국과 종속지라는 상상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다른 한편으로, ‘이산’(diaspora) 관점에서 출발하는 학자들은 스스로 연민에 빠지는 ‘고아’ 내지 ‘사생아’적인 정서라든가 스스로 과대망상하는 아류 정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리하고자 할수록 어지러워지는 화어계라는 계보 및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중국 문학이라는 전통을 인정한 후라야만 비로소 지피지기하게 됨과 더불어 전략적으로—장아이링의 페러독스를 빌리자면— 그러한 중국을 ‘바깥에

포함(包括在外)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하버드대학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는 2006년 봄에 미국·홍콩·타이완·말레이시아에서 온 화문 작가 네화링(聶華苓, 1925~), 리위, 스수칭, 예쓰(也斯, 1948~), 평루(平路, 1953~), 튀이퀸, 리쯔수, 지다웨이(紀大偉, 1972~)와 현재 [하버드대학 소재지인] 케임브리지에 체재하고 있는 아이베이(艾蓓, 1955~), 장펑(張鳳), 리제(李潔) 등 10여 명을 초청하고, 동아시아언어문명학과에서 중국현대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과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화어계 문학의 가능성을 토론했다. 창작 외에 언급된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여행 중의 ‘중국성’: 어떻게 중국 경험과 중국 상상이 지역·종족·사회·문화·젠더 등 각종 차원에서 이동·전환되는가, 어떻게 화어계 문학이 이러한 경험과 상상에 각인·재현되는가.

(2) 이산과 이주: 화인 후예의 해내 또는 해외에서의 이주와 이민 심지어 식민의 경험에 따라 어떻게 화어계 문학이 그 언어·종족·법률적인 경계 넘기 문제를 체험하게 되는가.

(3) 번역과 문화 생산: 어떻게 번역(문학·영화·극에서부터 각종 물질문화의 전파까지)이 화인 공동체의 세계와의 대화 경험을 반영 및 재현하며, 또 어떻게 관련된 문화 생산이 체제화 내지 주변화되는가.

(4) 세계 상상: 어떻게 중문문학이 역사 과정에서의 본토나 역외의 글쓰기 또는 경험을 담지하며, 어떻게 다양한 초국적 현대의 경험이 다기한 언어 환경 속에서 중국—화인—의 역사를 상상하는가.

네화링은 당대 해외 중문 창작에서 ‘창시자 할머니’이다. 조차 시기의 우한(武漢)에서부터 항전 시기의 충칭으로, 종전 이후의 베이핑과 난징으로, 타이베이로, 다시 미국으로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과 글쓰기가 겪은 ‘삼생 삼세(三生三世)’는 작가의 창작 위치와 시야의 전환을 충분히 말해준다. 어떻게 여권 하나로 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대륙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성장한 예쓰는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이주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그의 작품은 단순히 섬과 대륙의 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 속에 대륙이 있고, 대륙 속에 섬이 있는 것”이다. 뉴욕의 스수칭은 그녀의 삶에서 섬과 얽힌 인연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 타이완에서 출발하여, 홍콩에서 한창 때를 보내고, 마침내 뉴욕의 중심—맨허튼 섬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리위는 쓰촨에서 태어나서 타이베이에서 성장했는데, 반평생을 나라라는 이상을 위해 방랑 분투하면서 종이 위에서 영원한 꿈의 땅을 찾고자 했다. “신분은 사라지고, 정의도 모호해졌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중문 글쓰기에 대한 후회 없는 집착이었다. 반면에 미국에 거주한 바 있는 핑루는 타이완에 돌아간 후 다시 홍콩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녀 자신이 말한 그대로였다. “기왕에 문자를 거처로 선택한 이상 그 자체가 (사람들의 정의 속에서, 그리고 갖가지 분류 시스템 속에서) 이산인지 이견인지, 변방인지 이역인지 ... 따위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문학이란 원래 스스로 자부하고 절제하는 것이며, 당연히 문학 경험 역시 스스로 아끼고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인艾蓓는 여러 차례의 풍랑을 겪은 뒤 미국 동부에 칩거하면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데, 역시 참으로 정직한 문자 속에 자신을 안돈시키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리제는 상하이에서 태어나 11세에 출국한 뒤에도 여전히 중문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의 상하이 이야기의 숨씨는 예사롭지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모어의 신비한 부름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뤼이훤은 타이완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성인 출신 2세대 작가로서, [타이완] 섬에서의 경험은 결국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중국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는 그의 울울한 글쓰기에 대한 중요한 은유이다. 중국, 아버지의 중국은 그가 쓸 수 없으면서도 쓰기를 잊을 수 없는 안개 속 풍경이요, 그 영원한 머나먼 곳의 유혹이자 고통이다. 하지만 타이완 출신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강단에 섰던 지다웨이의 글에 이르게 되면, 타이완인지 중국인지, 해내인지 해외인지, 갖가지 고향의 상상이 젠더적·퀴어적 낙인을 남겼는지 등을 묻고자 한다. 말레이시아 출신인 리쯔수는 “이곳의 화어는 거칠고, 허술하고, 난잡하고, 상처투성이이며, 곳곳에 종족과 역사의

흔적이 낙인 찍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글쓰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남양의 땅에서 화어가 기이한 꽃과 신비한 열매를 탄생시키도록 했다. “‘뒤죽박죽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뒤죽박죽’을 스스로 즐겼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화문문학은 비로소 천지개벽하듯이 자기 자신의 길과 언어 환경을 찾아낸 것이다.”

빈번한 문학 여행, 동태적인 주변부 상상 가운데, 말레이시아·타이완·홍콩·미국·중국에서 온 이들 10여 명의 작가가 하버드에 모이는 인연을 가졌고, 중문 글쓰기의 경계 넘어서기와 회귀의 가능성을 토론하고, 또 해외문학의 중국에 대한 구축과 해체를 토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대화의 목소리 속에서 화어계 문학의 탐색이 이미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